- ①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예배시간에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두시기 바랍니다.

01 목회권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해주시고, 전교인 모두가 가까운 이웃과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02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토요일 새벽기도회에 가족, 자녀들과 함께 온 식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03 수요전도대

수요전도대(매주 수요일, 오후 4~6시, 준비기도/가브리엘실)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4 부서별 모임 안내(오후 1:00~1:40)

6월부터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2주/본 당	여 선 교 회	1주/본 당
음영위원회	4주/가브리엘실	안수집사회	3주/가브리엘실
예배위원회	5주/본 당	권 사 회	3주/본 당
교회학교임원	5주/믿음실	은퇴권사회	3주/믿 음 실
남 선 교 회	1주/가브리엘실	은퇴안수집사회	3주/드림실
샤 론중 창단	2주(토)오전7:30/가브리엘실	에벤에셀중창단	4주(목)오후7:30/가브리엘실
다윗과요나단	4주,오후3:40/은혜실	젊은가정3040	2주,오후 12:15/사랑실

05 캄보디아 선교물품

캄보디아 선교물품으로 중고 노트북 기증을 받습니다

06 문화선교학교

* 시니어 건강교실: 7월 개강(수요일 오후 2시, 1만원) / 강사: 박정옥 집사

교우소식

- * 중보기도: 임채명 집사(건강이 회복되어 캄보디아 교회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 * 사업확장 이전: 장복실 권사(곤지암읍 도척로 152-4)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코로나19 종식과 회복을 위하여

7월 3일 7월 13일-20일 맥추감사주일 캄보디아 미션트립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1부 07:0	0 본당 예배실
주 일 예 배	2부 09:0	0 본당 예배실
	3부 11:0	0 본당 예배실
주일찬양예배 14:00		본당 예배실
수 요 기 도 회 19:00		본당 예배실
새 벽 기 도 회 06:00		본당 예배실
탁 아 부	09:00/11:0	0 비전센터 4층 사랑실
유 치 부	11:00	비전센터 3층 소망실
초 등 부	11:00	비전센터 2층 믿음실
중 고 등 부	09:30	비전센터 5층 은혜실
청 년 부	13:30	비전센터 5층 은혜실

담임목사	윤호식
부목사	김상태 박순영 장중현
전도사	강동혁 이원규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협동)장로	석용문 윤동섭 강영한
시무장로	박인순 차덕조 정명희 최영식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박수영 박은영 하주원

- 1 강대권·함선희(네팔)
- 2 김진수·류선혜(키르키스스탄)
- 3 엄기정·이해정(터키)
- 4 오베드로·이신영(브라질)
- 5 대현교회
- 6 비전명성교회
- 7 우이도서부교회
- 8 도림교회
- 9 선공교회
- 10 부산온누리교회
- 11 예수마음교회 12 임마누엘하우스교회
- 13 YJC인터내셔널교회
- 14 이삭선교회
- 15 명목선교회
- 16 아프리카선교회
- 17 범양선교회
- 18 서울장신대학교
- 19 C채널
- 20 한국교회봉사단

캄보디아 개척교회

프놈교회 · 뜰라잉뽀아교회 꼭쓰다으교회 · 뜨러빠엑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0

(행2:47)

3부 11:00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6월 19일 9권 25호

양	주 기 도 문
	01 5 71

2부 09:00

1부 07:00

* 여 는 찬 양		주 기 도 문		
* 예 배 선 포	인 도 자			
* 찬 송	9장(2절)			
*교 독 문		100번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찬 송		70장		
기 도	엄영애 권사	차금미 권사	정명희 장로	
교회소식	인 도 자			
성 경 봉 독		마 6:10-13		
	노미정 집사	정후남 집사	홍순자 집사	
찬 양	은혜찬양대	호산나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오늘의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	"주기도문(2)"		
	윤호식 목사			
봉 헌	370장			
* 친 교	다 같 이			
* 송 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축 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 2시

찬	향	찬 양 팀
기	도	한옥희 권사
성	경	계 5:1-6 인 도 자
설	교	윤호식 목사
축	도	원호식 목사

		-11
찬 양		찬 양 팀
중보기도		다 같 이
대표기도		정기숙 권사
성 경	빌 2:1-4	인 도 자
설 교		윤호식 목사
축 도		윤호식 목사

오후7시

6/20(월)	삼상 12:1-25
6/21(화)	삼상 13:1-23
6/22(수)	삼상 14:1-23
6/23(목)	암 2:1-5
6/24(금)	암 2:6-16
6/25(토)	암 3:1-8

찬 양	 찬양팀
기도	 유민규
성 경	 막10:42-45
설 교	 장중현 목사
축도	 장중현 목사

7월 10일(주일) 오후 12시 15분, 4층

■ 대표기도	1부	2부	3부
6/26	김미숙	차덕조	장재욱
7/3	조근석	문명숙	최영식
7/10	박인순	송길선	강예식

■ 성경 봉 독	1부	2부	3부	
6/26	박내성	박정옥	최현숙	
7/3	이향실	김인숙	강선영	
7/10	정선영	고동환	진은자	

안수집사회 월례회: 오후1시(가브리엘실) 은퇴안수집사회 월례회: 오후1시(드림실) 권 사 회: 오후1시(본 당) 은퇴권사회: 오후1시(믿음실) 캄보디아 미션트립 준비모임: 오후3:10(본당)

■ 지 난 주 등 록

■ 2022년도 등학
김영을(3남선교회)
권용환(청년부)
이철현(2남선교회)
유영순(에스더)

왕옥희(마리아)

제 목: "주기도문"(마 6:9-13)

오늘 본문과 눅 11장의 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기도의 기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 히 합니다. 즉.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널드 던은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②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③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 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마 6:33),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4:34). 눅 22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아시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고 목숨을 건 기 도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기 뜻과 하나님 아버지 뜻 사이에서의 고민과 결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 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을 다 이루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혈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바로 알 고 기도의 근거를 바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 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0일 성경통독 안내

- 1. 이번 주간은 172-177일차로, 통독은 매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 2. 매일 아침,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통독 내용을 확인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 3. 조장은 통독 완료자 명단을 오후 8시30분-9시, 아니면 다음 날 오전 8-9시에 조장 모임방에 올려주세요.
- 4. 나눔은 자유롭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서로 격려해주세요.

■ 십일조

______ 강예식 김만수 김병준 김은지 김종일 박정옥 박태민 변승지 손막동 송원섭 윤정민 이명호 이복순 이정한 이철현 장의옥 장중현 장지순 정기숙 조옥순 채석진 최영식

■ 감사헌금

강대희 궁예식 강용중 권경자 권용환 김명길 김영춘 김은지 김종일 문지연 석명주 신동현 신진숙 왕옥희 이기세 이기옥 이덕수 이서진 이순근 이일심 장복실 정선영B 장중현 진미숙 정필녀 조아영 조웅순 채석진 하나경 하상호 하주원 한옥희 황인순

■ 주정헌금

박진영 박혜미 변성진 손막동 엄만유 오현애 윤준섭 이별님 이원규 이용창 이종길 이종부 이향실 이혜숙 장애란 장연실 장재욱 정명희 정성환 정순희 정영규 정유진 정후남 제언희 조근석 조아영 조우영 조은영 차금미 최경란 최영식 최윤주 최진호 황수흔

■ 캄보디아 건축헌금

김은지 이복순 이영희 정진숙 조성래 무 명

■ 선교헌금

강예식 고통환 김은지 김학수 송원섭 엄만유 장지순 정명희 조미애 조옥순

■ 일처번제 고 5 강용중 김광재 김인숙 윤호식 이현경 제언희 김정혜 황수정

온라인헌금안내

* 일반 헌금 계좌 / 국민은행 633801-04-144338(광주제일명성교회)

남편 허리 수술 잘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삼촌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게 하소서, 담대함과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캄보디아 교회건 축이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칠 수 있 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쁘레이트바잉 교회 성전건축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기 가득한 가정 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사업장 위에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자녀의 건강과 사업의 안정을 주옵소서, 계 속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기도문과 함께 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희 가정에 오늘 긍휼 로 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저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 니다. 아픈 곳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치유하여 주소서, 교회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제 때에 완공되게 하 소서, 남편의 치료기간이 길지 않게 하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지만 기도응답에 감사를 드립 니다. 기업과 사업이 주님꼐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자녀에게도 믿음이 심겨져서 좌로나 우 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소서. 위험한 일을 하는 동생을 지켜주소서. 손이 아픈데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 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후원〉

· 캄보디아 건축 계좌 / 국민은행 633801-04-144354(광주제일명성교회)

캄보디아 쁘레이트바잉 교회 건축에 많은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